

## 12. 율법주의의 특징

누가복음 18장 11절~12절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와 기복신앙 그리고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짓 신앙체계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즉,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신앙의 가짜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무섭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말할 때 자기들이 소경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자기들보고 소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겠느냐고요. 안 듣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처럼 하나님과는 분리된 거짓된 신앙체계 가운데 빠져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알았으면 소망이 있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9장 39절~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셨다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을 텐데 본다고 하니 실제로는 소경인데 본다고 생각하니마 오히려 눈이 어둡게 되어질 것이라" 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도 거짓 신앙에 빠져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있는지 빠져있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테스트(Test)가 필요합니다.

한동대 학생이 집회 인도 중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있다면 빠져있는 것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으면 그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봄으로서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신앙체계 가운데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리트머스 용지처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율법주의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로서 율법주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 첫 번째는 율법주의의 특징은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나면 영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성경구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드셨다고요? 종교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데 18장 9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우월감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든지, 성경이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선물이라면 의식들은 포장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용물이라면 예배든지, 성경이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나 하면 이 의식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잘하는 것 즉,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금식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이것을 잘하는 그 자체가 곧 내용물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왜곡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결과가 무엇이나면 의식 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죄책감입니다.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둘 다 율법주의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뒤에는 끊임없는 죄책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 극단일 뿐이지 뿌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켰고, 십일조를 잘 드렸고, 기도를 잘했고, 금식을 잘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그들은 자기 의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이 있는 그 자체가 곧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성도 중에 한 분이 미장원을 했습니다. 미장원의 손님을 교회로 또는 제가 심방을 갔을 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 손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느 교회냐고"

제가 "개척교회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손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년 동안 어느 단체에 가서 성경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경공부가 율법주의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율법주의냐고요?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공부는 겁과 같습니다. 물은 컵이 있어야 물을 담지요. 아무리 물이 넘쳐도 컵이 없으면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컵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함에도 그것은 컵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실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지식은 뭘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이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것이죠. 율법주의인 것이죠.

왜 율법주의인 것을 알 수 있느냐면? 그분이 성경에 말하는 그 의미대로 원래대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교회 샘물교회 선교회에 오면 율법주의가 뭔지 배우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다, 그러면서도 우월감을 갖기 쉽거든요.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왜요, 이론이 인격체를 대체해 버렸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관한 진리가 중요해요. 컵과 같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본질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을 따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런 자세를 안 가지죠.

율법주의란 게? 한 번 거기서 빠져 나오면 영원히 빠져 나오고,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빠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심지어 지난 번에 살펴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 앞에 올바로 서 있다가도 내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다음 순간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에 영적인 우월감이 있으면 그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증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다,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십일조를 빼먹은 적이 없다 다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이 있으면, 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이 있으면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에 가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전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대한 지나친 의존,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전통파괴주의자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저를 그렇게 이해하실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저는 전통파괴주의자가 아닙니다. 전통을 파괴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 중에서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뭐니까? 성경에 기초한 전통이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아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2

천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거요 잘못된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 기독교에 역사에 이미 다 알려진 것입니다. 다 알려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성경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이 전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기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거다 대부분 잘못된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통을 무시해선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그런 특징의 문제는 뭐냐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전통이 왜 밀접하게 결탁 될 수 밖에 없는지 아세요. 자 보실래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율법에다 자기들의 소망을 걸고 있었죠. 율법이 자기 반석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가 중요한 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일을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그 일을 안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를 들면 하루를 밭을 비벼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것이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무슨 말이나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게 왜 생겨났느냐면?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느냐 돌아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옳은 것이니까 틀린 것이니까? 옳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십일조 해야 되는데, 선물 받으면 십일조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고민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금 떼기 전에 십일조 해야 돼요 세금 떼고 후에 십일조 해야 돼요? 고민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를 원하니까, 많은 쪽으로 드리면 돼지... 왜 얼굴이 굳어지시나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어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고 쉽스로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라고 정의를 해서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처음 지킨 게 아니라 그렇게 몇 백 년을 지켜 온 것이죠. 당연히 그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옳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아주 합리적인 거 아세요. 왜냐고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자가 일어나는데, 앓은뱅이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것을 누가 부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저들이 예

수님을 바알세불 집혔다. 귀신의 왕을 말하는 사단, 사단 집혔다. 이단이다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 중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게 분명하고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사단의 능력 그래서 사단의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종교지도자들 말이 너무 맞는 거 같아요, 한편으로는. 왜? 몇 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초해서 이해하고 있는 말을 예수가 어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 믿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왜 율법주의와 전통은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왜 밀접하게 관계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잘못다고 나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들이 시대를 잘못다고 나서 그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 이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한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구했다면, 그들에게 분별력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주의 전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이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예를 들면 안식일 잘 지키고, 십일조 하고, 봉사하고, 선교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율법을 그냥 쭉~ 이거 잘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릇이라고 하고요, 그릇. 수단! 뭐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고, 좋은 존재로 사랑하기 위한!

그런데 율법주의는 신앙이 왜곡되면, 신앙이 타락하면, 잘못 되어지면 어떻게 돼냐 하면,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체보다, 그 수단을 잘하는 그릇에 해당하는 것을 잘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반대로 이거 못하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전락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전통과 관련 있죠.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통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37절 이하부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같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참 합리적이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늘 싸웠어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은 줄 아세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이라고 믿었고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언 듯 보기 부활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어요. 둘이 싸웠어요, 늘.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부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편이냐?’ 는 얘기죠. 그 때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오경만이 성경이 아니야, 구약성경 전체가 성경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구절을 말씀하세요. 현재형이거든요.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은 지 400년 되는데, 지금 현재 살아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현재형으로 영어로는.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을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하면, 그들이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잘못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이해했는지 몰라도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있었다면 그 가운데서 부활을 보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아요. “그 당시 살아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당시 살아 왔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았다더라면, 가졌더라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왔을 텐데, 너희가 성경은 많이 상고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나를 대적 한다’ 는 거예요.

그 당시 전통 가운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사람입니까? 신약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 말씀에 토대한 삶을 살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더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거라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날 왜 율법주의가 많은지 아세요?

신앙을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기보다, 신앙을 규례와 규칙으로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성수주일, 십일조, 봉사, 목사님 순종 잘하는 것. 이거 다 목회자가 가리켜 놓은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고. 그 말은 없었어야죠.

제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순종해야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단히 문제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해가 전통에 기초하고 있죠. 전통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 전통에 어긋나면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가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참다운 신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은 초기에는 특히 더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방문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몇 분 방문한 분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다 알죠, 누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방문한 분들 많이 계시요.

근데, 포도나무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문하셨지만,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에게 물어봤지만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성남에서오시기도 하고, 산본에서 오셨다고도 하고, 어떻게 멀리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기독교 Tv보고 오셨다고도 하고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시기도하고 다 소개로 옵니다. 그러니까 좀 덜 그러지만, 지금도 가까운데서 방문했다가도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왔다가 거의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왜 남아있지를 못하느냐? 너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이상하거든요. 순서도 없지요. 사도신경도 안하는 것 같지요. 찬송가도 안하고, 무슨 복음송가를 30분씩이나 하고 있어. 찬송 한다면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책 막게 주일날 대 예배시간에, 제가 오늘은 양복을 입었습니다마는 넥타이는 안 매고, 목사가 양복도 안 입어 앞에서 . . . . .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아주 성경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목사가 무슨 옷 입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사도신경 외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인하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예배시간에 외워야 그 예배가 참다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배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도 다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불러졌던 찬송가는 요즘 불러지지도 않습니다. 시대 시대별로 하나님이 다른 찬송가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왜 문제인가? 그들은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워쉽 컨퍼런스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합니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온 삶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삶에서 예배가, 경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앙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 두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시대

에도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시대에도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역사에 부흥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도 예외가 없이 . . . . .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본인들은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는 가려져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영광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주일날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경배와 찬양을 하니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예배드리는데, 설명을 해주는 데도, 막 투덜대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 장로교 아니야” “장로교면 30장이면 찬송가 30장을 불러야지, 무슨 . . . . .” 그러면서 문을 닫고 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화내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화낸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문제는 가려져 있다는 거죠. 다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성경에 기초한 삶이 아니고,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삶인 거죠.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게 비벼먹지 말라 이걸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전통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통에 의존한 나머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요? 껍데기입니다. 포장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놈의 목사가 예배를 . . . . .” 아니예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예배의 형식은 껍데기입니다. 예배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4시간, 6시간씩 예배드린대요. 찬양하고 춤추고 뛰고, 그러다 또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춤추고 6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나은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나은 겁니까? 예배 모양은, 순서는, 절차는 옷과 같습니다. 유행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옷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입니다. 알맹이는 아프리카에서든, 한국에서든, 1500년대건, 2000년대건, 중세시대이건, 오늘날이건, 똑같습니다. 알맹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른 방법이 발견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배시간에 하나님이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외우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날마다 주기도문 외울 겁니다. 외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또박또박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옷이라니까요. 내용물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 . . . .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와 같이 신앙이 잘못 왜곡되게 이해되기 때문에 전통에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심각한 게 그거잖아요. 오늘날 때로는 순서를 따라서 매우 정숙하게 매우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음악에 맞추어, 소위 말하는 경건한 예배는 드릴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거처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 . . . .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배드리고 가도 이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뤄지지 않습니다. 원망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이 전통에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을 못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아야겠죠?

세 번째 내가 잘못돼있으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다른 말로 뭐지 아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옆에서 봐도 참 겸손한 사람이예요. 제가 가까이에서 봐도 . . . . .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다 똑같습니다. 오십 보, 백 보입니다. 그런데, 참 겸손해요. 그런데 자기가 참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은 하나님이 자기의 교만을 들추시는데 자기 속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더라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배우고자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도다.” 누가 한 말이죠? 스테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스테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지요. 우선 한 가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세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부자들은 저주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게 되셔야죠. 그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 . . . .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원으로 살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겸손하게 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 . . . .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게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자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죠. 통회함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아프리카를 이번에 가면서도 그게 절박하게 이해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기대하고, 또 가서 되어질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너무나무 놀랍게 함께 하신다고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뭐를요? 제 속에 그들에게 내 줄게 없음을 . . . . .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동적입니까? 우리가 간다고 자동적으로 따라옵니까?

우리가 하라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입니까? 그러니까 절박해요. 하나님이 하셔야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절박함이 있어요. 그게 통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게 뭐지 아세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율법주의에는 이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앙을 뭐로 전락시켰다고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자세가 있느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속에 지금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안일함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문 밖에 계셨잖아요!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안일함.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런줄 아세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살거든요. 자기 자원을 가질 만큼 가졌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도 다급함도 절박함도 없이 안일해요. 평안해요. 그게 병들은 징조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감기 오면 콧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기가 콧물은 아니예요. 콧물이 감기의 증상이

죠. 이 속에는 바이러스의 증상이잖아요. 하나가. 콧물이. 열이 증상이고. 콧물과 열이 감기는 아니죠. 우리가 율법주의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을 다른 말로 하면 ‘높아진 생각’입니다. 왜 안일하느냐? 자기 자원을 의지해 사니까요. 다시 말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라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왔다는 거죠. ‘뭐 인간이 다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셨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안일함이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앞에 있는 쫓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섯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저는 꽤 많은데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율법주의의 증상들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외부에서 있다가 처음에 포도나무교회나 새물결선교회에 오면 너무 너무 사모해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 너무 사모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물을 좀 먹으면 배부르면 뭐해지는 것처럼 좀 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이 인격체를 대신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 곧장 가면 좋지만 가다가 좀 수평 가다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올라갈 때예요. 지금을 다시 주님을 절박하게 찾아서 나아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율법주의의 특징들로 우리 자신을 비취봄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더욱 더 찾고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시는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하시는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하시는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 때문에 하는게 아니에요.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하신다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동참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령이 가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러한 자세로 그 앞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완성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돌이켜 보면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붓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슴으로 이끌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예’ 로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